

教育課程 運營과 支援體制

咸 宗 圭

(淑明女大 教育學科)

1. 머리말

大學은 研究, 教育 및 奉仕活動의 三大 機能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同一性을 유지하면서도 地域이나 歷史의 背景, 設立 目的 등의 特殊性에 따라 강조점을 달리 하는 경우가 많지만, 모든 大學이 知識의 傳承者와 文化의 創造者를 育成하려는 것이므로 그 主要 機能은 教育이 아닐 수 없다. 教育의 기반을 確立한 기초 위에 研究나 奉仕機能이 定立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大學教育의 概念이나 目的은 다양하게 規定할 수 있다. 그러나 그 窮極的인 目的은 미래 主役世代로서의 役割 機能을 다하기 위한 高級人力을 育成함에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大學에서의 教育內容과 方法은 이 基本的인 機能을 具現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大學教育의 成果도 이 目標에 비추어 評價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問題가 있다. 現代社會는 加速的 變化가 進展됨으로써 大學教育을 위요한 諸般 측면에서의 革新的 對應策이 요망되고 있다. 즉 오늘의 變化에 對處하고 未來指向의 教育內容이나 方法을 갖추어야 할 것이 尙가 程度로 요청되고 있다. 그럼에도 大學教育은 傳來의 인습적인 傾向을 踏襲함으로써 社會變化와의 罅(gap)을 넓히고, 그로 인한 大學教育의 踏步 또는 後進性을 더욱 助長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未來學者가 말했듯이 오늘의 教育은 미래의 主役世代를 育成함에 있어서 19세기의 方法을 適用하는 矛盾을 낳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의 하나로 大學 教育課程 運營上의 問題를 들지 않을 수 없겠다.

大學의 教育課程은 教養, 專攻 및 選擇課程의 세 코오스로 全體 構造를 갖추고 있는데 그 運營은 아직도 形式的이고 偏破的이며 劃一性이 강하다. 뿐만 아니라 自律性과 獨自性을 缺한 不合理的인 運營 實態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오늘의 大學 教育課程 運營에서 많은 問題點을 낳게 하고 있는 것은 각 大學의 教育方針에 緣由하는 경우도 많거나 文教當局에서의 行·財政의 支援體制가 未洽하여 초래되는 측면도 적지 아니 하다고 思料된다.

이런 視角에서 教養, 專攻 및 選擇課程別 運營上의 문제점과 더불어 教育課程 質 管理를 위한 大學 및 文教當局의 支援體制에 대하여 생각해보려 한다.

2. 教育課程 運營의 問題點

1) 教養課程

大學의 教育課程에서 가장 빈번한 논의의 대상이 되어 온 것은 教養課程의 構成과 運營上의 問題에 있는 것 같다.

아직은 歷史가 짧고 定着되지 못한 狀況에서 提起되는 문제들이지만 아무리 合理的인 敎科 編制를 위한 研究·開發을 통해서 完璧에 가까운 敎養課程을 構成해도 運營方法이 적합하지 못하면 그 成果를 높일 수 없다. 이에 관련되는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 걸쳐 考察하고자 한다.

첫째로 敎養課程은 低學年에 集中的으로 配當되는 不合理性を 안고 있다.

敎養敎育에 대한 意義나 概念은 흔히 두 가지 見解의 差가 있는 것 같다. 하나는 '敎養敎育은 그 自體로서의 意義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어떤 다른 目的을 위한 手段으로 생각될 수 없다'고 한다. 또 한편에서는 '專攻科目을 研究하는 데 不可缺한 學問的 基礎를 구축하는 것이므로, 先修科目으로서의 性格을 띠어야 한다'고 맞서면서 兩者間에는 좀처럼 양보가 없다.

그런데 이들 敎科의 運營은 거개의 大學에서 1,2학년이 집중적으로 配定하고 있는 實情임에 비추어 運營 측면에서 보면 그 의의나 개념은 後者に 따르고 있는 傾向이 강한 實態이며 그 自體가 많은 문제점을 낳게 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視角에서 보든지 低學年에서만 履修해야 한다는 原則은 있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敎養科目의 性質에 따라서는 上級學年에 配當하는 것이 敎科間의 橫的 關聯과 수직적 연계성을 유지함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예를 들면 上級學年이 되어 敎養科目에 대한 필요를 깨달았을 때 그 科目은 이미 생각 없이 履修해 버린 뒤였다는 아쉬움을 남기게 되었다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한 調査에 의하면 低學年에서 집중적으로 時間 配當을 하게 되므로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이수하지 못했다는 경우가 54.9%에 달하고 있다.

西獨의 大學에서는 高學年에서 새로운 角度로 敎養 과목을 이수하는 傾向이 있다 함은 우리에게 많은 示唆點을 주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로 敎養課程 運營의 形式性으로 敎養 輕視의 傾向을 낳게 하고 있다.

한 때 많은 大學에서는 敎養敎育의 重要性을 인식하고 敎養學部를 制度化하는 등 그 充實을 기하기 위한 노력도 있어 왔다. 그러나 實效를 거두지 못한 채 學部敎育으로 統合된 지 오래다.

그 후 敎養과정 이수에 대한 學生들의 認識은 卒業을 위해 강요되는 苦役이라는 印象마저 갖게 되는 한편 專攻科目에만 注力하는 傾向을 낳게 하고 있다. 그 이유인즉 敎養敎育이 高等學校 敎育의 延長이라는 인상을 질게 하고 기대했던 內容이 다루어지지 않는 한편 運營 자체가 形式的 傾向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反應이다.

學生들의 反應에서와 같이 敎養課程의 運營에서 形式性을 結果케 하는 요인은 많다. 그 중에서도 敎養課程 構成의 源泉을 이루고 있는 敎育法 施行令上의 여러 규정은 敎育理念이나 時代的인 變遷에 副應할 수 있는 大學측의 期圖나 努力을 반영시킬 수 있는 융통성이 없다. 그리고 大學의 學科가 고도로 專門化됨에 따라 敎養 과목은 점차 輕視되어 가는 傾向이 생기고 있다. 또 高等學校의 敎育內容과 흔히 重複되기 쉬운 內容을 集中的이며 強制的으로 이수케 함으로써 學生들까지도 이에 대한 關心의 後退를 結果케 하고 있는 것이다. 要는 文敎當局의 規制, 運營 主體인 大學에서의 配慮 부족, 학생 자신들의 反應 등등이 複合要因을 이루므로 敎養敎育은 더욱 形式的인 運營을 助長케 하고 있는 것이다.

세째로 擔當 敎授에 대한 배려의 부족이 敎養과정 운영의 不合理性を 조장케 하고 있다.

敎養과정 質 管理를 위한 要諦는 바로 講義하는 敎授의 指導 能力에 달려 있다. 그럼에도 많은 경우 敎養과정은 經驗이 적은 敎授나 時間講師가 擔當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大單位 學級으로 편성된다. 大學에서의 이런 대치는 擔當 敎授나 學生들에게 敎養科目의 輕視 風潮를 조장하게 된다. 바로 이 점에 문제가 있다. 敎養 과목은 知識의 傳授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豐饒로운 敎育 經驗을 쌓은 敎授가 지도해야 學問으로서의 기반을 닦는 한편, 人生의 幅을 넓힐 수 있는 二重의 機能을 다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더구나 新入生들에게는 敎養科目의 受講이 大學生活의 序幕을 이루게 되는데 그들이 敎養敎育에서 失望을 느끼게 된다면 이는 바로 大學課程의 全體에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런 視角에서 생각할 때 敎養敎育은 中堅敎授들이 擔當해야 할 責任을 더욱 切感하게 된다.

學生들은 교양과정의 학습을 통해서 大學만이 줄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을 體驗해야 學問에 대한 열망을 가질 수 있고 풍요로운 大學生活을 展開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네째로 知識 위주의 교양교육이 그 意義나 概念에 違背되고 있다.

敎養課程은 그 의의나 개념의 差에 따라 指導 內容이나 方法上의 異論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同一 敎科를 敎授하는 경우에도 같은 學點 안에 담을 수 있는 敎養의 量과 質은 엄청난 차이점이 생길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問題의 核心은 編制된 科目을 해당 시간 안에서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成敗가 달리게 될 것이다. 이 문제는 專攻敎育에서도 강조되어야 하지만 특히 교양 과목은 問題解決을 위해서 요구되는 능력 또는 태도가 무엇인가를 고려해서 講義 內容을 조절해야 할 것이 요망된다.

專攻科目에서와 같이 知識·技能 위주의 강의가 아니라 思考力, 判斷力, 研究的인 태도와 創意性을 開發하고 伸張하는 일에 力點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 교양과정 운영은 같은 內容을 分班해서 여러 敎授가 강의하게 되므로 異質的 學習方法의 적용이 결과하는 隔差가 생기게 된다. 여기에서 교양과정을 分擔하게 되는 敎授 相互間에 敎授要目, 進度表, 학습 평가 등에서 協議를 거쳐 공동 계획에 따른 協同的인 運營을 기해야 할 것이 요망되는 것이다.

2) 專攻課程

大學敎育의 특징은 바로 專攻課程의 運營에 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대학교육은 전공교육과 거의 同一視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비중이 높은 專攻課程의 構成이나 運營은 바로 現代 科學의 線上에서 있는데 현대 과학은 遠心的 細分化 경향을 띠면서 지극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을 특징으로 한다. 그에 따라 知識의 量이 폭발적인 팽창 현상을 보이게 되고 大學의 專攻學科 내지 專攻分野가 계속적으로 分化됨으로써 교육과정에서의 專攻性이 지나칠 정도로 세분화되어 分科的·並列的인 구성 및 운영을 기하는 경향이 강하다.

〈표 1〉 學問系別 學科의 種別 및 각 大學에 개설된 학과 수

구 분	학과의 증별 수	각 대학에 개설된 학과 수
인 문 계	52	551
사 회 계	40	629
자 연 계	131	1,129
예·체능계	39	294
의 학 계	11	133
사 법 계	49	445
계	322	3,181

우리나라 大學에서의 專攻領域別 學科數는 1965년에는 70개 大學에 204개이던 것이 '86년에는 100개 大學에 322개 종류에 이르고 있다. 또 각 大學에서 開設한 學科數는 3,181개에 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위의 〈표 1〉과 같다.

이와 같이 大學의 專攻學科는 激增하고 있는데, 이에 더해서 同一學科 專攻課程의 구성은 大學마다 多様하며 또 같은 綜合大 안에서도 組織을 달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百花亂發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編制上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서 그 특징은 一律的으로 말할 수 없다. 이런 構成이나 編制上의 특징으로 인해서 전공과정의 運營은 더우기 다양한 樣相을 띠게 되므로 그 문제점에서의 共約數를 찾기란 거의 無謀에 가까운 일이라 하겠다. 어떤 專攻領域에 焦點을 맞추어 檢討할 것이냐의 문제가 따르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專攻課程의 運營은 교양과정과의 조화로운 相補的 均衡을 갖추어야 한다는 처지에서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 대하여 생각하려 한다.

첫째로 敎養·專攻課程을 分離 運營함으로써 조화적·상보적인 機能을 喪失케 하고 있다.

더불어 교양 및 전공과정은 大學敎育의 목적이거나 기능에 비추어 미래의 主役世代를 育成하기 위한 교육 내용으로 編制된 것이므로 同一 目標을 향한 協同的 機能을 다 해야 할 것이 요망되고 있다. 그럼에도 大學에서의 교육과정 운영은 兩者를 완전히 분리시켜 별개의 것으로 다루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즉 교양과정은 普遍的인 것, 전공과정은 特殊性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看做한다.

오늘의 敎育은 目的的 統合으로서의 人格의 統合을 기하기 위한 全人育成, 敎과 편제에서의 통합 과정의 構成 및 運營方法을 연구·개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實態는 敎育과정 운영에서의 時代的인 추세나 傾向에 逆行되는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專攻分野의 運營도 그러하다. 오늘의 科學이 細分化되면서 발전하고 있지만, 한편 諸 科學의 전체적인 構造性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도 크게 浮刻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을 空中分解하기 위해 이끄는 科學이 아니고 人間性의 統一을 助長하는 科學이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敎養·專攻課程을 분리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오늘의 科學研究에서 한 측면만 강조한 剩餘的인 측면은 忘却 또는 포기하는 처사라 아니 할 수 없다.

둘째로 專攻課程을 重視함으로써 학점 배정의 비중을 높일 뿐만 아니라 敎授 中心의 敎科目을 편제 운영하는 傾向은 更正되어야 한다.

大學의 敎育과정 운영에서 論難의 中心을 이루는 것 중의 하나는 바로 敎養 中心의 敎育이나, 전공 중심 敎育이나의 問題에 있는 성실다. 그러나 敎養課程의 幅을 넓혀야 한다는 것은 하나의 口號에 그칠 뿐 거개의 大學이 전공 위주의 編制와 運營에 기울어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코 오스별 學點 配定에서 볼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大學 卒業에 所要되는 이수 학점은 세 차례에 걸쳐 변동 과정을 거쳐 왔는데, 학점 배분의 내용을 보면 아래 <표 2>와 같다.

그러나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 <표 2>에서 보면 專攻課程이 전체의 50% 내외로 되어 있으나 選擇課程은 명칭이 선택이지 실은 전공의 성격을 띤 과목으로서 專攻 위주로 운영하는 結果를 낳고 있는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이들

<표 2> 우리나라 대학 敎育과정의 코오스별 학점 배분 ()안은 백분율

연도	1945~'53	1954~'72	1973~현재
교양과정	40(22.2)	49(30.6)	46(32.9)
전공과정	80(44.4)	82(51.3)	69(49.3)
선택과정	60(33.3)	29(18.1)	25(17.9)
계	180(100.0)	160(100.0)	140(100.0)

專攻課程은 學生을 위한 전공인지 敎授가 담당하기 위한 전공 과목인지 分擘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은 듯하다. 敎科 編制의 改編이나 강의 과목 배정에서 더러 볼 수 있는 論難의 焦點이 과목에 따라 特定 敎授의 固定 담당의 傾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도 그 사례 중의 하나라 할 수 있겠다. 여기에서 專攻領域의 學點을 줄이지 않으려는 傾向, 특정 교수의 담당 과목을 改廢하지 않으려는 반응 등은 바로 전공과정 운영에 문제점을 낳게 하는 結果를 초래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起然的인 자세가 요망되는 것이라 하겠다.

세째로 專攻課程, 敎養課程의 학년별 집중 배정을 止揚하고 分散 運營하는 方法을 指向해야 하겠다.

교양과정 운영의 첫째 項目에서도 언급하였거니와 兩課程을 學年 段階에 따라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특히 교양과정을 專攻을 위한 기초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또 高等學校 卒業生들에게 곧 專攻課程으로 進入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르게 되므로 일종의 가교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 등에서는 一應 首肯이 된다. 그러나 이 경우 교양과정과 전공 과정은 垂直的인 연계성을 保持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提起된다. 이런 문제에 대한 배려나 치밀한 계획 없이 學年 配當의 固定的인 性性으로 해서 學生들로 하여금 敎養輕視, 專攻重視의 結果를 낳게 하는 것은 대학 敎育과정 운영의 全般에 걸쳐 문제점을 낳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學生들뿐만이 아니다. 敎授들까지도 교양 담당, 전공 담당의 敎授가 분리되고 피차 자기 담당 분야의 課程이나 科目을 강조하는 傾向까지 낳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敎育課程 運營面에서의 制度的 偏在 傾向은 兩課程 사이에 장벽 또는 斷切現象을 낳게 됨으로써 大學敎育의 機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敎授 相互間의 人間關係로까지 波及되는 副作用을 낳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음에 注視해야 할 것이다.

3) 選擇課程

오늘의 大學 敎育課程에서 하나의 특징을 이

루는 것은 多彩로운 選擇敎科의 運營을 통해서 學生 개개인의 폭 넓은 個性 伸張의 기회를 얻게 하려는 점에 있다. 개성의 伸張·發揮은 개인적으로 추구해야 할 문제일 뿐만 아니라 國家·社會發展의 次元에서도 긴요한 교육 문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趨勢나 必要에서 오늘의 大學에서는 다채로운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운영을 기하기에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大學에서는 이들 敎育의 추세를 外面이나 하등 學點 配當에서 名目上의 선택과정이고, 교육과정 내용에서는 專攻科目의 延長이라는 印象이 짙을 정도로 有名無實한 상태에 있는 것이 그 實態라 하겠다. 또 選擇科目의 운영은 必須로서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많은 選擇敎科群에서 單一敎科만을 開設하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그러하다. 學校 經營의 財政的 이유, 교수 초빙난 등으로 부득이 하더라도 이것은 敎科 運營에서의 일방적인 처사요, 심하게 말하면 學務 운영상의 一種의 橫暴라고도 할 수 있겠다. 말이 選擇이지 결과적으로는 必須가 되며 學生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敎務處가 선택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選擇敎科가 개설되어도 專攻科目과의 시간 중복으로 부득이 포기해야 할 경우가 많아진다. 이런 점에 비추어 學生들이 履修하고자 하는 選擇科目을 자유로이 수강할 수 있는 폭을 넓혀서 効率的으로 운영할 수 있는 對策을 강구해야 하겠다.

3. 支援體制

大學 敎育課程 운영의 실태와 問題點을 살펴 보았거니와 是正해야 할 많은 矛盾點을 內包하고 있는 것 같다.

사람은 모순 속에 사는 存在라 한다. 그러나 모순된 일은 是正을 위한 努力이 따라야 할 것이다. 더우기 敎育은 目的的 活動으로 營爲되는 社會事象이므로 그에 위배되는 矛盾은 目的指向을 위한 合理的인 활동으로 轉換시켜야 할 것이다.

이런 視角에서 대학 교육과정 운영에서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제반 여건이 갖추어

져야 하는 데 여기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의 당사자인 大學當局과 文教行·財政의 측면에서의 支援體制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첫째로 大學 敎育課程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대학 당국의 支援體制에 관한 문제이다.

오늘의 大學 運營에서 크게 浮刻되고 있는 문제는 學校 經營의 合理化 문제와 敎育 質 管理의 두 측면이 있다 하겠다. 그 어떤 것도 輕視할 수 없는데 일반적으로는 前者에 무거운 比重을 둠으로써 後者が 不實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 중에서도 私學의 경우 이와 같은 경향이 적지 않음을 看過할 수 없다. 그러나 大學의 敎育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最少限 教育과정의 質 管理를 높이기 위한 支援이 따라야 하겠다. 예를 들면 學事改革委員會를 설치하여 부단히 교육과정의 改善, 運營의 合理化를 위해 노력한다든가, 교육과정의 研究·開發을 위한 委員會를 구성해서 改善策을 강구하는 등의 일이다.

知識·情報의 폭발적인 팽창 현상은 새로운 學問을 위한 敎科 開發이 시급하므로 舊態를 탈피하지 못한 채 안주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하기 위해서는 人的 資源과 物的 施設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아무리 훌륭한 敎育課程을 構成해도 그 운영을 위한 시설이나 교수가 부족하면 敎育의 成果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大學當局은 研究와 敎授를 위한 大學의 機能을 다 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의 質 管理를 높이기 위한 운영의 合理化를 기할 수 있는 最少限의 支援에 인식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둘째로 大學 敎育課程의 質 管理를 높이기 위한 文教當局의 行·財政的인 支援體制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나라 大學의 敎科 編制는 1952년의 敎育法 施行令에서 대학의 교과는 必須와 選擇科目으로, 必須는 다시 一般敎養과 專攻科目으로 구분하되 일반 교양 과목은 必須科目의 1/3 이내, 선택 과목은 全體科目의 1/3 이내로 구성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學期, 授業日數, 大學의 學科開設, 學點, 必須와 選擇의 교과목 구성 등 교육과정의 外的 基準과 교양 과목에 관한 內的 基準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大學의 學則은 대

學別 특징을 반영시키면서 多少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 敎育課程 構成의 源泉은 바로 敎育법 시행령에서의 규제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大學敎育은 거의 모든 것이 文敎部의 직접적인 관할 밑에 놓여 왔으며 文敎部長官의 지휘, 감독하에 있기 때문에 國·公·私立에 따른 大學의 創學精神이나 敎育內容도 결국은 個性 없는 敎科 編制의 形式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물론 大學敎育의 革新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72년에 '大學敎育 改革의 國家的 基本方向과 推進黨略'이 확정 발표된 후 '73년부터 實驗大學을 중심으로 연구가 추진되었으나 敎育과정의 구성과 운영은 아직도 획일적이고 형식적이며 또 停滯的인 狀態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낳게 하고 있음은 다분히 대학 敎育과정 편제나 운영에 대한 敎育法 施行令上의 規制가 큰 要因을 이루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文敎當局에서는 敎育과정 구성, 운영의 源泉을 이루고 있는 敎育法 施行令의 規制를 緩和하거나 융통성을 부여하여 大學의 自主와 自律에 委任함으로써 大學이 책임을 지고 운영하도록 政策 轉換을 가져와야 할 것으로 믿는다. 이러한 전제하에 研究 및 敎育與件의 확충에 焦點을 두고 우수 敎수의 확보와 勤務 조건을 改善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支援은 많은 측면에서 要請되게 되지만 敎育 및 研究를 위한 기본 시설의 확보, 科學·技術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內部 施設 및 機資材의 現代化가 敎育과정의 質 管理를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라 하겠다.

이와 같이 생각할 때 大學 敎育課程 運營의 合

理化는 본질적 측면에서 自律性을 確保할 수 있어야 하겠다. 즉 大學 自律機構의 운영을 活性化하고 文敎部에서 管掌하고 있는 行政業務를 과감하게 위임함으로써 大學의 責任行政을 誘導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高級人力을 양성하기 위한 大學施設의 改善, 整備를 강화하기 위해서 大學敎育을 발전시키기 위한 財源을 確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겠다. 그 方法으로서는 敎育改革審議會에서 論議되고 있는 바와 같이 高等教育 發展基金의 造成, 기부금의 적극적인 유치 등 多面的인 支援體制를 갖추어야 大學敎育의 質을 높이기 위한 敎育課程 運營이 活性化될 것으로 믿는다.

要是 統制와 規制, 감독과 지시 등의 行政의 자세를 탈피함으로써 大學의 自律性을 높이고, 敎育 內容·敎수 方法을 現代化할 수 있는 財政的인 支援을 통해서 敎育과정 운영을 合理化할 수 있는 方向으로 誘導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支援體制가 갖추어지게 되는 경우 大學當局의 責任行政이 強化되어야 할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

〈參考文獻〉

- 申大鉉外, "忠南大學校 敎育課程 改善을 위한 韓國 大學 敎育課程 研究", 忠南大學校, 1987.
 李星鎬, 大學敎育課程論, 延世大學校 出版部, 1987.
 咸宗圭, "大學 敎養課程의 問題點과 改善의 方向", 淑明女子大學校 論文集, 第19輯, 1979.
 黃禎奎外, "韓國 大學의 敎授-學習方法의 實態와 問題點 探索", 韓國大學敎育協議會, 研究報告 85-6-37號, 1986.